

지역축제지원 조례의 확산요인 분석: 제도적 동형화를 중심으로

박 정 인

국문요약

이 연구는 지역축제지원 조례 제정이 제도적 동형화(institutional isomorphism)를 통해 확산되었는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지방정부의 지역축제관련 지원 제도 중 대표적으로 지역축제지원 조례를 들 수 있다. 2004년부터 제정되기 시작한 지역축제지원 조례는 2021년 기준 13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제정하였다. 다수의 지방정부가 주로 단체장의 예산 지원이나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중 하나 이상을 지역축제지원 조례에 포함함에 따라 이 연구에서도 이 두 내용에 중점을 두고 조례를 살펴보았다. 연구 분석을 위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226개의 지방자치단체와 세종특별자치시를 대상으로 패널서열로짓분석(panel ordered logit analysis)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모방적 동형화와 규범적 동형화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축제지원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지방정부가 지역축제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주변 지방정부의 지역축제지원 조례와 각 지역의 문화·축제·관광관련 민간 비영리단체의 영향력이 컸음을 볼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제도적 동형화가 지방정부의 지역축제지원 조례 확산의 주요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지역축제지원 조례에 대한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지역축제, 제도적 동형화, 지역축제지원조례, 지방정부, 패널서열로짓분석

I.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의 지역축제지원 조례 제정의 확산을 제도적 동형화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지역축제지원이란 지역축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각 지역축제의 목적에 맞게 진행되기 위해 예산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과 축제의 기획, 홍보, 제도, 조직, 평가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정부가 축제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정책적 수단을 의미한다(김경태, 2010). 지역축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주민의 참여활동 촉진, 교류를 통한 지역 자부심 회복, 도시재생을 위한 개발 기회 제공 등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낸다(주성돈·김정인, 2015). 따라서 지방정부는 지역축제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성공적인 지역축제를 개최하고자 노력한다. 지방정부의 지역축제지원 제도 중 하나로 지역축제지원 조례가 있다. 지역축제지원 조례는 보통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지원과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여 제정되며, 지역에 따라 두 내용 중 하나만을 포함하여 조례가 제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형태의 지역축제지원 조례는 2004년 4월 가

평균에서 '가평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기준 134개의 기초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다. 지방정부는 의회의결을 통해 지역축제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므로 지역사회 내에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이현식, 2004).

이 연구에서는 왜 많은 지방정부들이 유사한 내용의 지역축제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축제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다양한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첫 째, 문화관광축제 선정 제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축제의 예산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많은 지방정부들이 선정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제도적 동형화 중 강압적 압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압력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다른 지역과 유사한 지역축제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 일 수 있다. 둘째, 어떠한 지역축제 지원이 해당 지방정부에 효과적인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 지방정부의 제도를 모방할 유인이 크다. 이는 모방적 압력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각 지역의 문화·축제·관광을 주요 사업으로 수행하는 비영리단체로 인해 지방정부는 지역축제지원 조례를 제정했을 수 있다. 관련 비영리단체는 지역축제에 대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으며, 축제추진위원회의 위원이 될 자격을 갖추고 있고, 지역축제 개최에 대한 영향력이 크므로, 이들의 압력으로 인해 지역축제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을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226개의 지방자치단체와 세종특별자치시를 대상으로 패널서열로짓분석(panel ordered logit analysis)을 시행하였다. 분석에 앞서 지역축제지원 현황과 지역축제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제도적 동형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도출된 가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지역축제지원 현황 및 이론적 논의

1. 지역축제지원 현황

1) 중앙정부의 지역축제지원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역축제에 대한 지원정책 중 대표적으로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이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은 전통문화와 특색있는 주제를 바탕으로 개최되는 지역축제 중 관광 상품성이 충분한 축제를 대상으로 1995년부터 매년 지정해왔으며, 예산과 함께 국내·외 홍보를 지원해왔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문화관광축제는 각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도에서 축제를 추천한 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축제 프로그램 등 콘텐츠, 축제 운영, 발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최근 문화관광축제의 경향은 관광객이 직접 체험하는 관광을 선호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역축제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축제를 기획하여 관광객이 참여하는 형태의 축제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관광축제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문화관광축제를 육성 및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관광축제의 평가·지원체계의 개선, 컨설팅·마케팅 지원 등 간접적인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또한 한국관광공사는 SNS를 통해 정보제공과 온라인 홍보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다양한 관광박람회, 전시회 참여를 통해 오프라인 홍보활동도 실시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표 1>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로 선정된 문화관광축제의 수를 보여주고 있다.

〈표 1〉 연도별 문화관광축제 선정 현황(2000년~2019년)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개수	25	30	29	30	37	45	52	52	56	57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개수	44	44	45	42	40	44	43	41	40	41

자료: 2019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 보고서(2020)

2) 지방정부의 지역축제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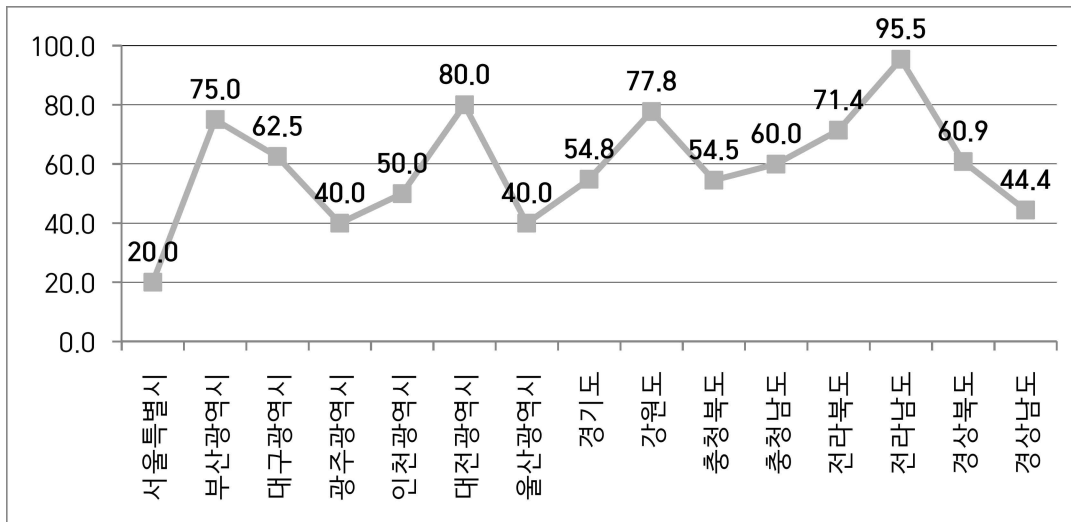
지방정부차원에서의 지역축제지원은 대표적으로 지역축제지원 조례를 들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축제지원 조례는 기존에 다른 지자체가 제정한 지역축제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제정되는 실정에 있다(김경태, 2010). 또한 지방정부의 축제지원 조례는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등으로 조례명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지역축제지원 조례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첫째, 지역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지역축제추진위원회는 축제의 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축제의 예산, 축제의 결과보고 등 전반적으로 축제와 관련된 다양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축제추진위원회의 경우, 위원회의 규모 및 구성원을 각 지역의 지역성, 축제의 규모 등 특성에 따라 달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조례에서 비슷하게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포함한 상태이다(김경태, 2010).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회, 축제개최자, 수탁자 등에게 행사를 개최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축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이현식, 2004). 매년 지역축제를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많은 지방정부에서 예산지원의 근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이현식, 2004).

지역축제지원 조례에서 대상으로 하는 축제는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축제나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예술행사와 같은 축제보다 다양한 계층이 참여가능하며, 개최시기가 정례적이고, 문화·예술·관광 진흥을 위해 개최되는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이다. 지방정부는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축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축제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다(이현식, 2004). 2021년 기준 226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13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축제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림 1)은 2021년 기준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역축제지원 조례를 제정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높은 비율로 지역축제지원 조례를 제정한 광역자치단체는 전라남도이며, 약 95%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축제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서울특별시는 가장 낮은 비율로 지역축제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20%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축제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림 1〉 2021년 광역자치단체별 지역축제지원 조례 제정 현황

(단위: %)



주: 특정축제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한 기초자치단체는 제외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 선행연구검토 및 가설설정

1) 지역축제에 대한 선행연구

지역축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되어 온 주제는 지역축제의 성공 요인과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이었다(박태식, 2006; 김차동·김항석, 2010; 안혜원·이민규, 2010; 유용재·최화열, 2013; 조승현, 2013; 임승후·배귀희, 2014; 최다솜·김도균, 2016; 이세준 외, 2018; 김동한, 2020; 조해진, 2020; Marais & Saayman, 2011). 이들의 논의를 종합하자면, 지역 정체성 확보, 충분한 예산지원, 적극적인 홍보,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특색 있는 프로그램 구성, 편리한 교통 제공, 축제 시기 조정 등이 지역축제의 성공요인이라 활성화 방안으로 나타났다. 김차동·김항석(2010)과 안혜원·이민규(2010)의 연구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축제의 활성화 요인을 제시한다. 김차동·김항석(2010)은 전라북도 지역축제를 중심으로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지역 정체성 확립,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독창적 이벤트 구성, 효과적인 홍보 수단 개발, 개최시기 조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안혜원·이민규(2010)의 연구에서도 충북 영동지역의 지역축

제 활성화 요인으로 축제 주제의 명확성, 편리한 교통, 편의시설,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특정 지역축제를 바탕으로 지역축제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있었다(유용재·최화열, 2013; 조승현, 2013; 최다솜·김도균, 2016; 이세준 외, 2018; 조해진, 2020). 유용재·최화열(2013)은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의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시기 고정, 축제의 정체성 및 이미지 확립, 축제의 교류와 개방, 프로그램 및 홍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조승현(2013)은 함평나비축제의 성공요인을 연구한 결과, 축제의 주제, 참여형 프로그램 구성, 축제 조직의 구조화 등이 잘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최다솜·김도균(2016)은 영국의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과 대구 국제뮤지컬페스티벌을 비교하여 지역축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모색하였다. 그 결과, 구체적인 홍보 계획을 근거로 한 적극적인 홍보, 정부와 기업의 지속적인 지원, 부대 프로그램의 증가, 축제 공간 확보, 축제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제시한다(최다솜·김도균, 2016). 이세준 외(2018)는 원동매화축제의 프로그램별 정량적 평가, 만족도 평가 등을 시행한 결과, 축제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해진(2020)은 2018 강릉문화재 야행을 사례로 관광콘텐츠에서 문화콘텐츠로의 인식 확장, 온라인 콘텐츠로의 확장, 지역의 캐릭터를 활성화를 지역축제의 발전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 박태식(2006)의 연구에서는 지역축제에 할당되는 예산의 규모와 축제에 참여하는 기관의 수를 지역축제 성공요인으로 나타냈다. 임승후·배귀희(2014)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특산물이나 자연환경, 역사 등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함을 밝혔다. 김동한(2020)은 유사한 지역축제가 많이 개최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지역주민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한다. Marais & Saayman(2011)의 연구에서도 축제의 성공요인으로 양질의 축제 및 우수한 관리, 효과적인 홍보, 교통 안내, 축제의 재미를 위한 활동의 제공 등을 언급한다.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적 상황과 연관지어 지역축제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었다(윤주철·문광민, 2011; 이장욱, 2019; 조서형·엄태호, 2019). 윤주철·문광민(2011)의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지역축제를 개최한다고 평가되는 지방정부가 축제 예산 비중을 증가시킬 때, 다른 지방정부의 예산도 증가하는 반면, 이웃한 지자체나 자매결연을 통해 상호교류하는 지자체와는 경쟁회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장욱(2019)은 지역축제 적자가 늘어나면서 지방재정건전성을 저해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계획 수립, 지역축제에 대한 평가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조서형·엄태호(2019)는 지역축제 운영이 공사파트너십이며, 1인당 지방교부세·1인당 국고보조금·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지역축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1인당 예산규모가 증가한다고 주장한다(조서형·엄태호, 2019).

뿐만 아니라 지역축제로 인해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하는 연구들이 있었다(안경모·이광우, 2005; 김영덕, 2019; 이광훈 외, 2020; Felsenstein & Fleischer, 2003). 안경모·이광우(2005)는 조건부가치추정법을 통해 이천도자기축제의 관광가치를 측정하고,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에게 제공하는 총관광가치를 각각 85억~96억 원, 86억~97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김영덕(2019)은 지역축제의 고용효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 관광호텔 누적숙박객수가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 때문에 축제를 통해 방문관광객 수를 늘릴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광훈 외(2020)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강원도 지역축제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한 결과, 지역축제의 개최 횟수 및 개최에 투입되는 재정은 증가하였으나 지역경제파급효과, 수익성과 같은 경제적 성과가 높은 축제가 많지 않았음을 밝혔다. Felsenstein & Fleischer(2003)의 연구에서는 지역축제가 지역소득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축제에 대한 공공지원이 관광전략으로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제도적 동형화를 통해 지역축제와 축제상설조직의 확산에 대해서 분석한 연구가 있다(석호원, 2010; 정찬영·김주호, 2020). 석호원(2010)은 경기도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지역축제의 확산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축제를 채택한 이웃정부의 수가 많고, 재정자립도와 주민일인당 문화공간 수가 많을수록 지역축제가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찬영·김주호(2020)는 한시적이었던 축제조직이 축제상설조직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연구한 결과, 축제상설조직의 형태와 구조가 강압적 동형화, 모방적 동형화, 규범적 동형화를 통해 유사해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지역축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가 있다(김현욱, 2015; 김영대 외, 2018). 김현욱(2015)은 지역축제의 발전 정도에 따라 지역축제의 관리 전략이 달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입기에는 축제 프로그램의 안착과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에 집중하고, 성장기에는 핵심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외국에 대한 홍보 전략에 초점을 맞추며, 성숙기에는 방문객의 편의·안전 프로그램 및 핵심 프로그램 보완과 입장료 인하 및 상품권 제공과 같은 이익 제공, 사회적 기여 이미지 제고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김현욱, 2015). 김영대 외(2018)는 IT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지역축제를 연구한 결과, IT 거버넌스 요인 중 홍보·마케팅 및 프로세스와 서비스에 대한 관리가 축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이 밖에 지역축제의 정보통신기술 도입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김송이 외, 2017; 박지훈·조영식, 2020). 김송이 외(2017)는 사물인터넷 서비스 중 하나인 비콘을 활용하여 위치기반 지역축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축제 방문객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박지훈·조영식(2020)은 ICT 융복합 기술을 응용하여 축제 방문객에게 축제 현장에 있는 시설물, 이벤트 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R 레이더 서비스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지역축제가 개최되는 현장에서 유용하므로 지역축제 방문객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지역축제와 관련된 연구는 다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지역축제지원 제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졌다. 지역축제지원 제도와 관련된 연구에는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이승경, 2008; 이광훈 외, 2020). 이광훈 외(2020)는 축제집행기관이 법인이며, 축제의 수익성과 지역경제파급효과가 클수록, 지자체의 행사·축제경비비율과 관광객 수가 증가할수록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승경(2008)은 지역축제의 특성상 재정자립이 불가능하므로, 예산이 필요한 축제집행부는 내실있는 축제의 개최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평가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이에 축제선정의 확대와 축제선정을 위한 평가방법과 축제선정방법의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한다(이승경, 2008).

2) 제도적 동형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행하는 조직들의 제도가 서로 유사하게 변화하는 원인을 조직이 합리적 효율성보다 정당성을 추구하기 때문으로 본다(김해보·장원호, 2015; DiMaggio & Powell, 1983). 이를 제도적 동형화(institutional isomorphism)라 하며, 제도적 동형화는 강압적 동형화, 모방적 동형화, 규범적 동형화로 구분된다(DiMaggio & Powell, 1983). DiMaggio & Powell(1983)에 의하면 강압적 동형화(coercive isomorphism)는 조직이 의존하는 다른 조직과 사회의 문화적 기대가 조직에게 미치는 공식적·비공식적 압력에서 비롯된다. 조직에게 가해지는 강압적 압력의 예는 표준화된 운영절차, 합법적인 규칙이 있으며, 이러한 압력은 민간영역, 정부영역 등에 영향을 미친다(DiMaggio & Powell, 1983). Meyer & Rowan(1977)은 합리화된 국가와 대규모의 합리적 조직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함에 따라 국내에서 제도화 및 합법화된 규칙이 조직구조에 점차 반영된다고 제시한다. 즉, 조직은 점점 주어진 영역 내에서 동질적이게 되며, 더 광범위한 제도에 순응하도록 조직화되는 것이다(DiMaggio & Powell, 1983). 또한 상위조직과 환경에 따라 강압적 동형화를 받아들일 수 있고, 강압은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지식, 정보 제한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유란희·김선형, 2017; 정찬영·김주호, 2020; Beckert, 2010).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경우, 재정적 측면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강압적 압력이 발생한다면 순응할 수 밖에 없다(유란희·김선형, 2017).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 선정 제도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게 강압적 압력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는 경우, 선정된 축제는 재정적 지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홍보 등을 지원받는다. 반면에,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이 극히 미진한 축제이거나 업무협력과 축제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제 등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이현식, 2004).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지역축제를 지닌 지자체는 문화관광축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축제와 관련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례로, 남원시의 남원 춘향제는 1997년에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었으나, 2009년에 축제시기와 춘향제전위원회 구성, 재정 및 행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춘향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해당 축제가 변화 및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유목화, 2015). 또한 지역축제는 지방정부의 재정역량만으로는 개최하기 어려우므로, 예산이 필요한 축제집행부는 내실있는 축제의 개최보다 예산마련의 기반이 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평가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승경, 2008). 문화영역에서 민간 문화예술이 공공부문에 높은 자원의존성을 지니며, 지자체의 문화정책이 중앙정부의 문화재원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은 강압적 동형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김해보·장원호, 2015). 정리하자면,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지역축제를 지닌 지자체는 문화관광축제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 지역축제를 발전 및 변화시켜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축제지원 조례 제정은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음 보여주는 역할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지역축제를 지닐수록 지역축제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

써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가설 1.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된 지역축제가 많은 지방정부일수록, 지방정부는 지역축제지원 조례를 제정할 것이다.

모방적 동형화(mimetic isomorphism)는 조직이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발생하게 된다(DiMaggio & Powell, 1983). 구체적으로 조직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목표가 모호할 때, 환경이 상징적인 불확실성을 형성할 때, 조직은 스스로 다른 조직을 모방한다는 것이다(DiMaggio & Powell, 1983). 이러한 모방 행위는 조직이 불확실성으로 인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적은 비용으로 실행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조직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이점이 있다(DiMaggio & Powell, 1983).

지방정부의 지역축제지원 조례 제정은 지방정부간에 서로 모방하기 때문에 확산되는 것일 수 있다. 조례를 제정한 지방정부들은 주로 자치단체장의 예산지원이나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중 하나 이상을 지역축제지원 조례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축제지원 조례에 포함될 내용이 과연 이 두 가지 내용이어야만 하는지 의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지역축제는 저마다 고유의 전통성과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성공적인 지역축제가 개최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축제의 개성을 모색하고, 지역에 맞는 고유의 특성을 찾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내용의 지역축제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오는 것은 효과적인 지역축제 지원 방법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즉, 성공적인 지역축제를 위한 지원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지역축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나 관광객 유치 등 목표 달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의 지역축제지원 조례 내용이 유사한 것이다. 특히, 같은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은 지역 문화와 정서, 자연환경 등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들 간에 지역축제지원 조례 내용을 모방하여 제정할 유인이 더 크다.

가설 2.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의 모방적 압력이 높을수록, 지방정부는 지역축제 지원 조례를 제정할 것이다.

규범적 동형화(normative isomorphism)는 전문화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한다(DiMaggio & Powell, 1983). 전문화의 두 가지 요인은 규범적 동형화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대학과 같은 정규교육 기관에서 훈련한 전문가들의 지식에 기반하여 정당화되는 것과 이러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성장하여 확산되는 것이다(DiMaggio & Powell, 1983). 대학과 같은 전문훈련기관은 전문가 집단의 규범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문가로 구성된 협회는 전문가 간에 규범적 규칙을 정의하고 공표하기 위한 수단이다(DiMaggio & Powell, 1983). 이에 전문가들은 소속된 조직과 상관없이 비슷한 지식과 행동패턴을 보이며, 이를 통해 조직들도 서로 유사해진다(DiMaggio & Powell, 1983).

지방정부 단위에서 규범적 동형화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비영리단체나 시민사회를 통해 규범적 동형화를 유발하는 전문화가 이루어진다는 결과를 밝히고 있다(유란희·김선형, 2017; 장유미 외, 2019). 지역축제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의 전통과 문화에 대해 지식이 있는 단체나

지역 시민들도 함께 협력함으로써 개최된다. 또한 지역축제지원 조례에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보통 축제·관광 관련 교수 혹은 문화·예술단체의 대표, 지역의회에서 추천하는 지역의원 등 지역 자체와 지역의 문화, 예술, 관광 등에 대한 전문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의 문화·관광·축제관련 비영리단체들은 지역축제지원 조례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각 지역의 문화, 관광, 축제관련 민간비영리단체는 지역축제지원 조례 제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추정할 수 있다.

가설 3. 지방정부 내 규범적 압력이 높을수록, 지방정부는 지역축제지원 조례를 제정할 것이다.

Ⅲ. 연구 설계

1.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226개의 기초자치단체와 세종특별자치시이다. 각 지역의 지역축제지원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살펴보았으며, 특정지역축제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는 제외하였다. 분석방법은 패널서열로짓분석(panel ordered logit analysis)이다. 이 분석방법을 시행하는 이유는 종속변수를 서열척도로 측정함에 따라 패널서열로짓분석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터미변수와 연도터미변수를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2. 변수의 측정

〈표 2〉는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수에 대한 측정지표이며, 각 변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종속변수

이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지역축제지원 조례 제정으로, 조례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지원이나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여 보았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축제지원 조례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①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시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만을 포함하여 조례를 제정한 유형, ② 효율적으로 축제를 운영하기 위해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만을 포함하여 조례를 제정한 유형, ③ 앞의 두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유형이다. 따라서 지역축제지원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경우는 0으로 측정하였고, 기초자치단체장의 예산지원 혹은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중 하나를 포함

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경우는 1로 측정하였으며, 두 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는 2로 측정하였다.

2) 독립변수

이 연구에서의 독립변수는 강압적·모방적·규범적 압력으로 설정하였다. 지역축제지원 조례와 관련된 강압적 압력은 중앙정부의 지역축제지원 정책과 관련이 있으므로 각 기초자치단체의 문화관광축제 수로 측정하였다. 모방적 압력은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에 속해있는 기초자치단체간에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비율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규범적 압력은 각 지역에 있는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분야를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비영리단체들의 영향력과 연관이 있으므로 해당 기초자치단체 내 문화·관광·축제관련 민간비영리단체 수로 측정하였다.

3) 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정치적 요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 성향과 투표율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소속된 정당이 보수당일 경우 0으로 측정하였고, 무소속일 경우는 1로, 진보당일 경우는 2로 측정하였다. 투표율은 전체 선거인 수 중에 투표자 수의 비율이다. 경제적 요인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이다. 지역축제에서 지자체의 재정역량은 중요하며,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사회적 요인은 인구 수와 문화기반시설 수이다. 인구 수는 해당 기초자치단체 내 주민등록인구 수를 로그로 변환하여 측정하였으며, 문화기반시설 수는 인구 십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로 측정하였다.

〈표 2〉 변수의 측정지표

구분	변수명	측정	자료출처
종속변수	지역축제지원 조례 제정	미제정=0	국가법령정보센터
		단체장의 예산지원,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중 하나를 포함하여 제정=1	
		단체장의 예산지원,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모두를 포함하여 제정=2	
독립변수	강압적 압력	각 기초자치단체의 문화관광축제 수	문화체육관광부
	모방적 압력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비율	국가법령정보센터
	규범적 압력	해당 기초자치단체 내 문화·관광·축제 관련 민간비영리단체 수	행정안전부
통제변수	단체장 정치 성향	보수=0, 무소속=1, 진보=2	선거통계시스템
	투표율	총 투표자 수/선거인 수×100(%)	선거통계시스템
	재정자립도	(자체수입÷자치단체 예산규모)×100(%)	KOSIS
	재정자주도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자치단체 예산규모) × 100(%)	KOSIS
	인구 수	주민등록인구 수(log)	KOSIS
	문화기반시설 수	인구 십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KOSIS

IV. 분석결과

1. 기술통계분석

〈표 3〉은 각 변수의 기초통계량이다. 전체 관측치는 2,270이다. 지역축제지원 조례 제정의 평균은 0.70이다. 강압적 압력으로 측정한 각 기초자치단체의 문화관광축제 수의 평균은 0.18로 문화관광축제를 지닌 지자체의 수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방적 압력으로 측정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비율의 평균은 38.49이며, 규범적 압력으로 측정한 해당 기초자치단체 내 문화·관광·축제 관련 민간 비영리단체 수의 평균은 4.84이다. 두 변수의 표준편차가 각각 24.08, 8.97로, 표준편차 값이 큰 것으로 보아 지역 간의 지역축제지원 조례 제정과 문화·관광·축제 민간 비영리단체의 수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통제변수에서 정치적 요인인 단체장 정치성향의 평균은 1.04로 보수당, 진보당이 거의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투표율 평균은 60.85이다. 재정적 요인인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평균은 각각 26.91, 60.51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각각의 표준편차가 14.63, 11.19로 표준편차 값이 큰 것으로 보아 지역별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차이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사회적 요인인 인구 수와 문화기반시설 수의 평균은 각각 약 223,190.8, 9.19이나, 표준편차가 각각 약 217,743.1, 8.59로 차이가 큰 것으로 보아, 인구와 문화기반시설도 지역 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기초통계량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지역축제지원 조례 제정	2,270	0.70	0.91	0.00	2.00
강압적 압력	2,270	0.18	0.39	0.00	2.00
모방적 압력	2,270	38.49	24.08	0.00	100.00
규범적 압력	2,270	4.84	8.97	0.00	107.00
단체장 정치성향	2,270	1.04	0.93	0.00	2.00
투표율	2,270	60.85	9.42	43.20	82.70
재정자립도	2,270	26.91	14.63	7.30	82.90
재정자주도	2,270	60.51	11.19	21.90	91.80
인구 수	2,270	223,190.80	217,743.10	9,617.00	1202,628.00
문화기반시설 수	2,270	9.19	8.59	0.70	74.90

2. 상관관계분석

〈표 4〉는 변수 간 상관관계분석 결과이다. 분석결과, 독립변수에서는 강압적 압력을 제외하고 모방적 압력, 규범적 압력이 지역축제지원 조례와 1% 유의수준에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모방적 압력과 지역축제지원 조례 제정 간의 상관계수는 0.3705이며, 규범적

압력과 지역축제지원 조례 제정 간의 상관계수는 -0.0688이다. 이 밖에 투표율, 재정자립도, 인구 수, 문화기반시설 수와 지역축제지원 조례간의 상관관계가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표 4〉 변수 간 상관관계분석 결과

변수명	지역축제지원 조례 제정	강압적 압력	모방적 압력	규범적 압력	단체장 정치성향
지역축제지원 조례 제정	1				
강압적 압력	-0.0204	1			
모방적 압력	0.3705***	0.1228***	1		
규범적 압력	-0.0688***	-0.0304	-0.1059***	1	
단체장정치성향	0.0122	-0.0458**	0.0617***	0.1486***	1
투표율	0.2314***	0.1587***	0.3058***	-0.2540***	-0.0881***
재정자립도	-0.1986***	-0.1423***	-0.3199***	0.3714***	0.1851***
재정자주도	-0.0524**	0.0726***	-0.0536**	-0.0360*	0.0111
인구 수	-0.2267***	-0.1268***	-0.2739***	0.3323***	0.2253***
문화기반시설 수	0.1752***	0.1879***	0.2873***	-0.0323	-0.1161***
변수명	투표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인구 수	문화기반시설 수
지역축제지원 조례 제정					
강압적 압력					
모방적 압력					
규범적 압력					
단체장 정치성향					
투표율	1				
재정자립도	-0.5806***	1			
재정자주도	0.2943***	0.3562***	1		
인구 수	-0.6020***	0.6268***	-0.0799***	1	
문화기반시설 수	0.6250***	-0.3789***	0.2721***	-0.5327***	1

*p<0.1, **p<0.05, ***p<0.01

3. 패널서열로짓분석

〈표 5〉는 지역축제지원 조례가 제도적 동형화로 인해 확산되었는지 패널서열로짓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이다. 모형1은 지역 터미변수와 연도 터미변수를 포함하지 않고 분석한 결과이다. 강압적 압력이 지방정부의 지역축제지원 조례 제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방적 압력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압력은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반면에, 규범적 압력은 지역축제지원 조례 제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모형에서는 관찰되지 않은 변수의 영향으로 인해 내생성

문제가 발생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후의 모형에서는 지역 더미 변수와 연도 더미변수를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모형2, 모형3, 모형4는 강압적 압력, 모방적 압력, 규범적 압력을 각각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2에서 강압적 압력은 지역축제지원 조례 제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에, 모형3의 모방적 압력과 모형4의 규범적 압력은 지방정부의 지역축제지원 조례 제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모형5는 이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전체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한 모형이다. 첫 째, 모방적 압력이 지역축제지원 조례 제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의 제정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축제지원 조례에 단체장의 예산지원,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을 포함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정부가 성공적인 지역축제를 위한 지원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효과적인 지역축제지원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등 다양한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주변 지방정부의 조례 제정을 모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설2는 지지되었다.

둘 째, 규범적 압력이 지역축제지원 조례 제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이는 지역에 문화·관광·축제 관련 민간비영리단체 수가 많을수록 단체장의 예산지원,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모두를 포함하여 지역축제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시민단체가 지역축제를 주관할 수도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축제지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에 문화·관광·축제 관련 단체의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가설3은 지지되었다.

반면에 강압적 압력은 지역축제지원 조례 제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문화관광축제 선정의 수가 적고, 매년 비슷한 축제와 비슷한 수의 문화관광축제가 선정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추정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 다른 데이터를 바탕으로 변수를 측정하거나 다양한 분석 방법 등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설1은 기각되었다.

이 밖에 문화기반시설 수가 많은 지자체일수록 단체장의 예산지원,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모두를 포함하여 지역축제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문화기반시설이 많다는 것은 지역 문화 및 축제와 관련된 자료가 풍부하며, 지역축제를 개최하여 운영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화기반시설 수가 많은 지자체일수록 지역축제 지원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5〉 패널서열로짓분석 결과

종속변수: 지역축제지원 조례 제정	모형1	모형 2	모형3	모형4	모형5
강압적 압력	-0.444*** (0.125)	0.395 (0.404)			0.286 (0.424)
모방적 압력	0.031*** (0.002)		0.036** (0.018)		0.037** (0.018)
규범적 압력	-0.001 (0.006)			0.285** (0.125)	0.287** (0.130)
단체장 정치성향	0.021 (0.051)	0.245 (0.231)	0.244 (0.236)	0.205 (0.235)	0.192 (0.238)
투표율	0.028*** (0.010)	0.086 (0.066)	0.105 (0.066)	0.067 (0.066)	0.087 (0.068)
재정자립도	0.022*** (0.007)	-0.079 (0.060)	-0.084 (0.060)	-0.082 (0.061)	-0.086 (0.062)
재정자주도	-0.027*** (0.007)	0.039 (0.051)	0.055 (0.052)	0.054 (0.052)	0.072 (0.054)
인구 수	-0.439*** (0.099)	-0.358 (1.925)	0.879 (1.928)	-0.630 (1.910)	0.598 (1.915)
문화기반시설 수	-0.008 (0.008)	0.185*** (0.060)	0.178*** (0.062)	0.181*** (0.058)	0.175*** (0.060)
지역 더미변수	no	yes	yes	yes	yes
연도 더미변수	no	yes	yes	yes	yes
/cut1	-2.979	7.054	23.855	3.999	20.910
/cut2	-2.578	9.648	26.461	6.599	23.532
N	2,270	2,270	2,270	2,270	2,270
Log pseudolikelihood	-1743.845	-419.618	-417.377	-417.595	-414.677
Pseudo R ²	0.1069	0.7851	0.7862	0.7861	0.7876

*p<0.1, **p<0.05, ***p<0.0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V. 결론 및 한계

이 연구는 지방정부의 지역축제지원 조례 제정이 제도적 동형화를 통해 확산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단체장의 예산 지원이나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중 하나 이상을 지역축제 조례에 주요 내용으로 포함함에 따라 이 연구에서도 이 두 내용에 중점을 두고 조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226개의 기초자치단체와 세종특별자치시를 대상으로 패널서열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강압적 압력을 제외한 모방적 압력과 규범적 압력이 높을수록 지방정부가 단체장의 예산지원과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축제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자체를 모방하여 유사한 내용의 지역축제지원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각 지역의 문

화·축제·관광 관련 민간비영리단체가 지역축제지원 조례 제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지방정부의 지역축제지원 조례가 제도적 동형화를 통해 확산되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분석을 바탕으로 인접한 지방정부와 각 지역의 문화·관광·축제 민간 비영리단체의 압력으로 인해 지방정부 간에 유사한 내용으로 지역축제지원 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축제지원 조례 내용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지원이나 축제추진위원회 구성과 같은 기본적인 지원도 필요하나, 앞으로 더 많은 지역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축제만의 고유한 특성을 모색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지역축제는 지역특산물, 자연환경, 역사 등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부각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임승후·배귀희, 2014). 따라서 향후 지방정부가 지역축제지원 조례를 제정할 때, 지역축제가 차별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지역축제지원 조례는 각 지자체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기초로 한 축제가 자생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이다(김경태, 2010). 따라서 행정 편의주의적인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지역축제지원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김경태, 2010).

이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지역축제지원'에만 초점을 맞춰 관련 조례의 주요 내용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각 지방정부의 다양한 지역축제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지역축제지원 조례 도입시기가 2004년이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넓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경태. (2010). 충남 지역축제 지원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충남발전연구원.
- 김동한. (2020). 지역축제 주민참여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축제 전문가 관점을 중심으로. 「관광레저 연구」, 32(8): 89-109.
- 김송이·김원표·정철. (2017). 비콘을 활용한 위치기반 지역축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31: 21-32.
- 김영대·이선영·이환수. (2018). IT 거버넌스 요인이 지역축제 성과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 연구」, 16(12): 1-10.
- 김영덕. (2019). 지역 축제의 고용 효과에 관한 실증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1(6): 2985-2994.
- 김차동·김향석. (2010).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글로벌경영학회지」, 7(2): 65-88.
- 김해보·장원호. (2015). 신제도주의 동형화 이론으로 파악하는 지역문화재단의 현재와 미래. 「문화

- 정책논총」, 29(2): 26-52.
- 김현욱. (2015). 지역축제의 성장단계별분석과 관리전략.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5): 537-549.
- 문화체육관광부. (2020). 2019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 보고서.
- 박지훈·조영식. (2020). 지역 축제지원을 위한 AR 레이더 서비스 개발.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21(1): 139-145.
- 박태식. (2006). 지역축제의 확산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19(3): 1097-1108.
- 석호원. (2010). 정책혁신으로서 지역축제 확산에 관한 연구: 경기도의 지역축제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4(1): 183-206.
- 안경모·이광우. (2005). 지역축제의 관광가치추정. 「호텔경영학연구」, 14(2): 225-237.
- 안혜원·이민규. (2010). 지역축제 활성화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6): 378-385.
- 유란희·김선형. (2017).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화 과정 연구-동형화 이론의 검증을 통한 확산의 이해. 「한국정책학회보」, 26(3): 51-80.
- 유목화. (2015). 문화관광축제 선정 제도가 지역축제에 미치는 영향. 「실천민속학연구」, (25): 389-423.
- 유용재·최화열. (2013).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컬러풀 대구 페스티벌을 중심으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3(4): 239-252.
- 윤주철·문광민. (2011). 지역축제의 상호모방과 경쟁회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2(2): 69-91.
- 이광훈·박홍열·최충익. (2020). 강원도 지역축제: 현황 및 성과(2012-2017). 「사회과학연구」, 59(2): 25-69.
- 이세준·김금영·신유진·오창호. (2018). 원동매화축제 방문객 만족도 분석을 통한 지역축제 발전 방안 연구. 「관광레저연구」, 30(8): 243-258.
- 이승경. (2008). 축제의 현황분석을 통한 축제지원정책의 새로운 방안 제시. 「예술연구」, 14: 19-32.
- 이장욱. (2019). 지방재정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지역축제 운용 주요 개선방향. 「자치발전」, 2019(10): 22-30.
- 이현식. (2004). 한국의 지역축제 지원정책 현황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5(3): 127-150.
- 임승후·배귀희. (2014). 지역개발전략으로서 지역축제 특성에 관한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4(3): 1-18.
- 장유미·유한별·하연섭. (2019). 지방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조례의 확산요인 연구: 제도 주의 이론에 근거한 사회적 압력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3(2): 97-116.
- 정찬영·김주호. (2020). 축제상설조직의 확산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제도적 동형화를 중심으로. 「문화산업연구」, 20(4): 151-161.
- 조서형·엄태호. (2019). 선택과 환경: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예산규모 결정 요인 연구. 「지방정부연구」, 22(4): 69-98.
- 조승현. (2013). 지역축제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함평나비축제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7(2): 215-236.
- 조해진. (2020). 콘텐츠플랫폼으로서 지역축제 발전방안 연구: '강릉문화재 야행'의 사례를 중심으로.

- 「스토리앤이미지텔링」, 19: 299-323.
- 주성돈·김정인. (2015). 문화예술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성공요인 분석: 일본지역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7(4): 1107-1133.
- 최다솜·김도균. (2016).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한 지역축제 발전 전략연구. 「여가관광연구」, 26: 67-86.
- Beckert, J. (2010). Institutional isomorphism revisited: Convergence and divergence in institutional change. *Sociological Theory*, 28(2): 150-166.
- DiMaggio, P. J., & Powell, W. W. (1983). The iron cage revisited: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collective rationality in organizational fiel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2): 147-160.
- Felsenstein, D., & Fleischer, A. (2003). Local festivals and tourism promotion: The role of public assistance and visitor expenditure. *Journal of Travel Research*, 41(4): 385-392.
- Marais, M., & Saayman, M. (2011). Key success factors of managing the Robertson Wine Festival. *Acta Academica*, 43(1): 146-166.
- Meyer, J. W., & Rowan, B. (1977). Institutionalized organizations: Formal structure as myth and ceremon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3(2): 340-363.

박정인(朴亭仁):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지방행정, 지방재정, 조직론, 사회복지 등이며, 주요 논문은 공무원의 삶의 질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2021) 등이 있다(jipark@yonsei.ac.kr).

Abstract

Analysis of Diffusion Factors of Local Festival Support Ordinance: Focusing on Institutional isomorphism

Park, Jeongin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enactment of the local festival support ordinance spread through institutional isomorphism. The local festival support ordinance is a representative local government's support system related to local festivals. The local festival support ordinance, which has been enacted since 2004, is enacted by 134 local governments in 2021. As many local governments mainly include the budget support of the head of local governments or the composition of the festival promotion committee in the local festival support ordinance, this study also focuses on these two contents. For analysis, panel ordered logit analysis is conducted for 226 local governments and the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from 2010 to 2019. As a result, it is confirmed that the local festival support ordinance of local governments is enacted through mimetic isomorphism and normative isomorphism. In other words, when local governments enact the local festival support ordinance, other local governments' local festival support ordinance and 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s related to culture, festivals, and tourism have a great influence. This study contributes to empirically analyzing the diffusion factors of local governments' local festival support ordinance, and suggests the directions of improvement for the local festival support ordinance.

Key Words: local festival, institutional isomorphism, local festival support ordinance, local government, panel ordered logit analysis